

英國 産業革命과 新經濟史 再論⁽¹⁾

梁 東 傑

英國 産業革命을 數量經濟史로 접근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성장률 추계의 하향조정 및 성분분석, 생산성 추이의 재론은 공업화의 내용 및 요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技術進步와 資本形成에 대해서도 심층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勞動供給의 양적, 질적 증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른 공장제 산업조직의 정착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단기적인 生活水準의 변화, 귀결과 사회적 유산 등을 살펴본다.

1. 머리말

分析的 經濟理論과 數量的 資料를 이용하여 역사를 해석하려는 新經濟史(數量經濟史, cliometrics)가 뿌리를 내린 지 이제 50여 년이 지났다. 미국의 경제사학계에서 출발한 이러한 방법론의 응용이 주로 미국사를 대상으로 축적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차츰 영국을 비롯한 유럽사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수량적 자료의 신빙성의 문제 때문에 신경제사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근·현대사의 해석에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경제사적 접근이 경제사의 가장 핵심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英國 産業革命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간의 노력의 집적이 대학교재(Floud and McCloskey(1981, 1994))로 출간되었으며, 이미 20년 전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지의 영국 산업혁명 특집(July, 1987)을 필두로 기타 각 학술지에서도 특별호를 발간하거나, 예를 들어, *Economic History Review*지는 거의 매호에 산업혁명에 관한 신경제사적 분석논문, 혹은 이에 대한 반박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미 이 글과 같은 제목의 글이 두 편이나[Mokyr(1985, 1993)] 출판된 까닭에 이와 같은 세설을 시도하는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그러나 필자 나름대로 학계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 정리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의 연구에 좌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양동휴(1996)를 수정, 확대, 보완한 것이다.

2. 定義의 問題

‘産業革命’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말-19세기 초를 계기로 영국의 경제가 혁명적인 변모를 겪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본질적인 단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모키르[Mokyr(1985, 1993)]의 분류가 비교적 명쾌하다. 토인비[Toynbee(1884)]에 의해 시작된 “社會的 變化說”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중시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분배, 또한 생산요소들의 배분이 중세적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에 의해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 “産業組織說”은 구래의 기능공 중심 또는 선대제 생산으로부터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이며, 유동자본보다 고정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산업노동자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이러한 과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이 학설은 마르크스[Marx(1867)], 망뚜[Mantoux(1928)] 등에 의해 대표된다. 란데스[Landes(1969)]를 중심으로 하는 “技術進步說”은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혁신, 각종 기계의 발달, 합성원자재의 등장 그리고 공장생산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잡한 기술진보를 산업혁명의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혁명이란 技術的 創造性(technological creativity)에 의해 추진된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Mokyr(1993, p. 17)]. 한편 쿠즈네츠[Kuznets(1966)], 로스토우[Rostow(1960)]류의 수량경제사가들은 국민소득, 자본형성, 노동공급의 양적성장이 급속히 가속된 것을 산업혁명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巨視經濟說”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편의상의 시도이며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른 학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퍼킨[Perkin(1969, p. 3)]의 것일텐데 그는 산업혁명을 “인간의 생활수단에 대한 접근방법의 혁명”이요, 인간이 “생태적 환경을 통제하는 데에서, 자연의 독재와 인색함으로부터 도피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18세기 말엽의 “革命”의 존재를 회의하게 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은 지역적, 그리고 부문별로 극히 제한된 점진적 현상이었으며 그 효과도 작았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기간 동안, 특히 초기에는 제조업 생산확대의 대중을 담당하는 것은 선대제 농촌수공업의 확산이었으며 공장제생산의 기여는 미미하였다. 후술할 바와 같이 1인당 총생산성장률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고 있던 수치를 훨씬 밑도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나 합성원자재 그리고 기계의 이용은 산업혁명기간이 훨씬 지난 후까지도 그다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Wrigley(1988)]. 가장 빠른 생산성향상을 보인 면방직공업의 경우에도 증기기관의 이용은 매우 느린 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합리정신이나 부르조아 멘탈리티도 이 당시에 급속히 퍼진 것이 아니고 귀족문화가 오랫동안 잔존했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도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Clapham(1930), Braudel(1984)]. 이와 같이 산업혁명을 극히 제한되고 점진적인 변화로 보는 견해들은 학설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成長指向的인 풍토와,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해 선진국의 “跳躍段階”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원용하려는 고조된 관심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와 함께 후퇴하고, 이에 따라 “樂觀論”적 역사해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Cannadine(1984)].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요즈음 현안으로 떠오르는 ‘歷史에서의 連續과 斷絶’ 논의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편이 옳으리라 생각한다.⁽²⁾

어찌되었건 산업혁명의 “革命性”은 변화의 속도보다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지역적, 미시적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속적이고 불가역적, 누적적이라는 사실이 대변하고 있다. 당시 영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1760-1830년간 거의 두 배로 증가) 1인당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이해가 가며, 또한 농업에서 상공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다른 ‘革命’들과 성격이 판이하다 하더라도 이미 100년간 사용되어온 개념을 포기한다면⁽³⁾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3. 成長率 및 生産性推計와 그 含意

산업혁명기의 成長率 및 生産性推移는 1962년에 발간된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가 20여년간 가장 믿을 만한 수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1인당 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이 1700-1760년 0.45%, 1760-1780년 -0.04%, 1780-1801년 1.08%, 1801-1831년 1.61%로서 산업혁명기간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가속성장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자주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통계처리방법의 발달로 그와 같은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점차 통념화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산업혁명의 단절성

(2) 주변환경이 역사가의 연구주제선택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료해석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을 수 없다. 또한 영국초기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Anderson 대 Barret Brown의 논란도 참조하라[Brown(1988), Ingham(1988), Komlos(1989)].

(3)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경제사의 극우파 근본주의 아야톨라”라고 혹평하는 학자도 있다[Cameron(1991, p. 1165)].

을 부인하는 바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이하에서 다시 부연설명하도록 하자. 우선 주로 크라프츠(N.F.R. Crafts)에 의해 재추계된 수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리글리와 스코필드[Wrigley and Schofield(1981)]의 人口推計, 린더트와 윌리엄슨[Lindert and Williamson(1982, 1983a)]의 職業構成資料(Social Table), 페인스틴[Feinstein(1981, 1988a)]의 資本形成推計 등이다. 여기에 각 산업의 가중치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고 각 수치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지수 채택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선 산업생산지수자체가 훨씬 완만하게 성장하는 결과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생산 역시 인구추계와 자본형성추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농업부문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농업생산성장률도 재추계할 필요가 있었다[Crafts(1985a)]. <表 1>은 Crafts(1985a)의 表(2.11)에서 철강, 면화, 건설가중치의 재수정[Crafts and Harley(1992)]과 상업부문 계산착오의 정정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하다는 國民所得成長率을 표시한 것이다.⁽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신투계가 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에 비해 첫째,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따라서 소비수준의 증가나 생산성향상 정도도 낮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이후 생활수준논쟁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업생산증가가 1760년 이전에 이미 상당했다는 것(<表 1> 자체에서는 읽을 수 없지만), 셋째, 성장률의 가속이 비교적 완만했다는 것, 넷째 성장률이 연 2% 정도로 지속적이 된 것은 1820년대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 등이다.

<表 1> 年平均成長率(%)

		최신투계		Deane and Cole	
		GDP	1인당	GDP	1인당
England and Wales	1700-1760	0.69	0.31	0.66	0.45
	1760-1780	0.64	0.01	0.65	-0.04
	1780-1801	1.38	0.37	2.06	1.08
Britain	1801-1831	1.90	0.50	3.06	1.61

資料: Crafts(1985a), Crafts and Harley(1992) 및 본문 참조.

(4) Clack(2001a)는 주로 Charity Commission Report를 이용, 재산소득을 상향조정한 결과 이들보다 더 낮은 성장률 추계를 얻었다. 인구증가로 지대가 일찍부터 상승했으며 산업혁명기 이전부터 재산소득이 높았으므로 성장률은 자연히 낮아진다는 것이다[Clark(200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추계가 산업혁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로 혁명적인 요소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환, 공업화, 도시화, 국제경제 내에서의 역할 급변 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계는 단지 “跳躍段階”를 거친 後發工業國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Crafts and Harley(1992)].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점진적 성장추계는 가격지수문제, 가중치, 지역별특수성, 제한적인 모습이라도 “象徴的”인 의미가 크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비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만한 것은 못 된다고 할 수 있다[Hoppit(1990), Jackson(1992), Berg and Hudson(1992) 등]. 다만 면직물가격 하락속도가 기존 연구결과보다 훨씬 컸다는 주장은 생산성이 그만큼 더 빨리 상승하였음을 시사하며 면직의 가중치를 생각할 때 총산업생산증가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아직 더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판단된다[Cuenca Esteban(1994)].⁽⁵⁾ 한편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이용한 추세성장논의는 지나치게 기술적인 듯이 보여 그야말로 “필자들끼리 e-mail로나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Greasley and Oxley(1994), Crafts and Mills(1994a, 1994b), Honeyman(1994)]. 어찌되었든 새로운 추계 쪽을 버리고 이제는 딘과 코울(Deane and Cole)의 추계로 돌아가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 추계가 어느정도 확립이 되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계산이 가능하면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을 각 요소로 나눈 요소생산성들의 가중기하평균을 總要素生産性(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 부르는데, 이는 집계생산함수의 존재여부, 각 요소의 측정문제, 요소가중치의 결정문제, 규모의 경제여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Solow and Temin(1985), Abramovitz(1993)]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가 $Y = AK^{\alpha}L^{\beta}$ 라 하면 $TFP = A = \frac{Y}{K^{\alpha}L^{\beta}}$ 가 되고 생산함수의 성장률 표현은 $\frac{dY}{Y} = \frac{dA}{A} + \frac{\alpha dK}{K} + \frac{\beta dL}{L}$ 이 되어 각 요소 및 TFP의 변화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계산의 결과는 <表 2>와 같다.

이것이 크라프츠와 할리[Crafts and Harley(1992, p. 718)]로 하여금 TFP의 중요성이 자

(5) Harley와의 *Economic History Review*(1995) 화답에서도 이 가설은 공고한 듯 보인다. 단지 추계 조정의 크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후 Harley(1998)는 공장도 가격과 물품세를 포함한 시장가격을 구분하여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1770-1815년간 면제품 명목가격이 불변이었음을 주장하였다. 1999년 Cuenca Esteban과의 화답에서는 가격하락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불변대체탄력성(CES) 수요함수를 가정하면 가격하락이 커도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암묵적으로 면직부분의 중요성을, 특히 수출의 중요성을 폄하하였다.

〈表 2〉 成長의 源泉 (연율, %)

	dY/Y	dK/K 에 의한 부분	dL/L 에 의한 부분	TFP성장	TFP비중
1700-1760	0.7	0.5×0.7	0.5×0.3	0.2	29
1760-1801	1.0	0.5×1.0	0.5×0.8	0.1	10
1801-1831	1.9	0.5×1.7	0.5×1.4	0.35	18

資料: Crafts(1994, p. 51).

〈表 3〉 1人當成長의 源泉 (연율, %)

	연평균1인당성장을	자본장비율	TFP	TFP가 차지하는 비중
1760-1800	0.2	0.06	0.14	70
1800-1830	0.5	0.09	0.41	82

資料: 본문 및 Mokyr(1993, p. 25).

본형성보다 덜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었다.⁽⁶⁾ 그러나 성장회계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노동단위당 또는 1인당성장률임이 분명하므로 1인당성장의 요인을 원천별로 나누어 보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전 기간 동안 1인당성장의 거의 모든 부분이 生産性向上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성장률이 이전에 밀어졌던 것보다는 낮았지만 그나마의 성장은 거의 전부 TFP증가에 의한 것이다. 물론 TFP가 곧 技術進歩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생산요소의 투입증가로 해명되지 못하는 'residual' 이 전부 TFP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기술진보의 척도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부분(ignorance)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기술진보를 포함하여 측정오차, 생산요소의 질적향상, 규모의 경제,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공업국이나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성장패턴과 확연히 다르게 자본형성보다 TFP의 역할이 컸음은 영국 공업화과정의 특수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⁷⁾

産業部門別로 生産性增加에 대한 寄與度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추계가 계속 수정되고

(6) price dual을 이용한 TFP 계산도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Antras and Voth(2003) 참조).

(7) Berg and Hudson(1992)은 Crafts 등이 노동투입을 성인남성에 국한시켜 여성 및 아동노동을 간과하였으므로 이들의 TFP계산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추가노동투입을 감안하면 TFP의 상대적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또한 內生的 成長模型(endogenous growth model)의 유용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아직 이 모형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사해석에 응용함이 너무 이른 느낌이 있다(Crafts(1995, 1996, 2004), Rebelo(1991), Solow(1994)).

〈表 4〉 各 産業部門의 生産性向上에 대한 寄與度(1780-1860) (연율, %)

	가중치	McCloskey		Harley	
		생산성	기여도	생산성	기여도
면직	0.070	2.6	0.18	1.9	0.13
우스테드	0.035	1.8	0.06	1.3	0.05
모직	0.035	0.9	0.03	0.6	0.02
철강	0.020	0.9	0.018	0.9	0.02
운하 및 철도	0.070	1.3	0.09	1.3	0.09
해운	0.060	2.3	0.14	0.5	0.03
근대부문합계	0.290	1.8	0.52	1.2	0.34
농업	0.270	0.45	0.12	0.7	0.19
기타부문	0.850	0.65	0.55	0.02	0.02
총계	1.410		1.19		0.55

資料: McCloskey(1981, p. 114), Harley(1993, p. 200).

있다. 〈表 4〉는 1780-1860년 기간 동안 머클로스키[McCloskey(1981)]의 추계와 최근 추계인 할리[Harley(1993)]를 함께 보여 주고 있는데 총생산성 향상율이 하향조정되었으므로 독립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니라 차액방식으로 얻은 ‘其他部門’의 기여도가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테민[Temin(1997)]은 같은 기간 직물이나 철강 이외에 기타제조업의 수출액이 상당하였다는 자료를 토대로 ‘기타부문’에도 국제적 비교우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生産性向上이 면직, 철강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다 산업혁명기의 기술진보는 광범위한 부문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고전적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기타부문의 기여도 추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테민[Temin(1997, 표 2)]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1794-1796년에서 1814-1816년 사이에 면직, 모직, 철강을 제외한 기타제조업의 총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서 28%로 떨어진 점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⁸⁾

(8) Harley and Crafts(2000)는 계산가능한 一般均衡模型(CGE model)을 시뮬레이션하여 식품수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산품 수출이 불가피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선도부문 무용론’에 대한 대응인지는 의심스럽다. Temin(2000)의 화답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찌되었든 Harley는 Cuenca Esteban과의 논쟁에서는 면제품 수출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Temin과의 논쟁에서는 강조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4. 産業革命의 原因

産業革命의 原因을 구명하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이며 백과전서적 접근으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Hartwell(1975)]. 산업혁명이 어떤 점에서 혁명적인가를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문제의 성격도 달라짐은 물론이다. 우선 '클레오파트라의 코' 식의 필요조건논의는 역사해석에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그렇다고 條件附確率論-단순한 우연이 아닌-과 일단 선두주자가 되면 선발자의 이점이 누적적으로 자기재생산된다는 이론으로 영국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은[Crafts(1977)] 사학자들의 오랜 연구관행을 벗어난다. 요즈음은 빛이 바랜 發展段階說이나 先行條件說, 또는 이의 변형인 거셴크론(Gerschenkron)假說 등도 영국의 선발성, 산업혁명의 시기 등을 설명하는 데 난점이 있는 듯이 보인다. 복잡한 사건은 복잡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Landes(1993, 1994)]. 그렇다면 산업혁명의 원인이라는 문제는 왜 프랑스나 네델란드가 아니고 영국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어 묻는 쪽이 가장 적절한 접근인 것 같다. 다시 말하여 18세기 영국이 여타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그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因果의 誤謬(post hoc ergo propter hoc)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나 별 대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자연자원 특히 석탄의 풍부, 섬나라의 이점, 전쟁에 의한 파괴로부터 제외됨, 타고난 국민성 등등은 쉽게 차치하더라도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몇 가지 가설만 열거한다면 우선 분할상속으로 토지경영규모가 계속 영세해 갔던 프랑스에 비해 長子相續制를 고수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에 의해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이 가능하였고 차남 이후는 새로운 경영계층에 참여해야 했다는 점[Landes(1969)], 토지재산에 기반을 둔 "얼린" 貴族制가 1660년 왕정복고 이후 정착하여 물질적 富와 정치적 권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Perkin(1969)],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행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 물론 조세부담률을 보면 1788년 당시 프랑스가 GNP의 6.8% 정도임에 비해 12.4%로 월등 높았으나 자의적인 부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명예혁명?)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다는 것[Weir(1989), North and Weingast(1989)] 등이다. 重商主義의 성격만 하더라도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것으로 무역규제 이외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다는 점 등이다. 정부보조가 없이도 도로, 운하 등의 정비로 일찍 국내시장이 통일되었다는 면도 강조되고 있다[Braudel(1984)]. 이외에 영국봉건제의 역동성, 시민혁명, 17세기 위기의 이른 극복[Dobb(1946), Hobsbawm(1954)]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국의 특수성을 단

편적으로 부각시키는 시도 이외에 소위 체너리와 서킨[Chenery and Syrquin(1975)] 방식을 사용하여 영국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다. 크라프츠[Crafts(1984, 1989)]는 19세기 유럽각국의 통계로부터 1인당 소득수준에 따른 平均的(normal) 構造變化에 주목하였다. 그는 각 산업간 노동력 배분과 소득창출의 구성뿐 아니라 총지출에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 출생률, 사망률, 취학률 등의 변화까지를 관찰대상으로 삼았으며 영국의 사례를 19세기 유럽의 평균적 변화와 대비시킴으로써 영국 공업화 패턴의 특징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경우는 같은 소득수준에 달했던 유럽평균(norm)과 괴리가 지대하여 영국의 선례를 후발국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국 공업화가 매우 특이하고 유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러가지 특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만 지적하자면 비1차산업생산성과 1차산업생산성의 차이가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기간에 급속히 줄어들어 소멸하지만 유럽평균적으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산업간 자원의 이동성이 영국에서 한결 높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우선 농업생산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더러 농업노동력비중이 17세기 말에 이미 50-55%에 불과했고, 1811년에는 약 35%, 1841년에는 약 20%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영국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꼭 영국의 우월성, 내지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요즈음 柔軟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論者들은 공장제 대량생산이 아닌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공업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abel and Zeitlin(1985), O'Brien and Keyder(1978), Roehl(1976), O'Brien(1996)]. 이러한 가설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원용될 수 있는지 또한 독과점대기업이 자원배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는 어떨지 차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기대된다.

왜 영국인가에 대한 설명 중에 시장의 크기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다. 농업소득증대, 인구증가, 해외시장 특히 植民地市場의 需要 등에 힘입어 공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설이다. 하나씩 검토해보겠거니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요측면은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우선 人口增加가 식량수요보다 공산품수요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농산물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면 오히려 탈공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農業所得의 増大의 경우라면 공산품수요가 비교적 더 빨리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대는 외생적인 수요팽창으로 볼 수 없으므로 需要牽引成長이란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요컨대 장기적으로 볼 때 需要는 外生變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성장에 따른 소득효과로서의 수요는 공급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Mokyr(1977)]. 수요증대에 의한 생산 및 소득의 증가는 케인지안실업이 존재할 경우에 국한된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그러한 유희자원이 실재했는가 의문이고, 둘째, 당시 수요증대의 대충은 미국독립전쟁과 나폴레옹전쟁에 의한 정부지출이었으므로 전쟁이 산업혁명을 촉진하였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수요구성의 변화가 공업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초점장치("focusing device")가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수요 패턴이 모직이나 린네르에서 기계화에 적합한 면직으로 변했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또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유행을 타는 소비품조의 팽창, 또는 "消費者革命"이 工業化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인데⁽⁹⁾ 이것 역시 소비품조의 외생성이 의심되는 만큼 산업혁명은 어디까지나 生産과 分配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통설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Fine and Leopold(1990)].

광범한 海外市場이 영국산업혁명을 촉진하였다는 가설에 오면 帝國主義論과의 관련 때문에 논의가 한층 복잡해진다. 순전히 輸出市場의 성장이 공업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설부터 살펴본다면 수출이 국민소득의 15% 정도나 되고 급속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두 차례에 걸친 전쟁 때문에 수출수요의 증가는 1760년 이전과 1780-1800년경에 제한되었다. 여기서 공산품 중 수출비중⁽¹⁰⁾ 특히 면직물이 컸다는 면은 주목할 만하다. 사탕이나 차 등의 수입과 제조업제품수출로 대표되는 선진국형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있다.⁽¹¹⁾ 그러나

(9) 이 주장은 도시화와 중상류층을 위한 근대적인 실내안락 소비의 '발명'이 내구소비재의 표준화와 다양화를 통해 신제품 시장을 확대했다는 것으로, 공업화의 過程革新(process innovation)에 버금가는 製品革新(product innovation)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17-18세기의 신제품, 또는 같은 제품이라도 더욱 참신하고 편의와 효용, 기호와 스타일을 더한 것의 목록을 들면 엄청나다. 예를 들어, 안경, 시계, 날염사라사, 실크헛, 등나무의자, 유리병, 포켓현미경, 납유리잔, 오지그릇, 베네치안 글라스, 용단커버의자, 자기, 마호가니, 니스칠한 장롱, 은제 차주전자 등등이 있다[Styles(2000), Berg(2002) 참조]. 한편, 하층 노동계급의 지출구성은 오히려 전통적인 필수품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Horrell(1996) 참조].

(10) Cuenca Esteban(1997)의 새 추계에 의하면 공산품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아서 11년 이동평균치로 볼 때 1801년 불변가격으로는 1760년에 28%, 1780년에 33%, 1801년에 40%에 달한다. 경상가격으로는 각각 31%, 28%, 39%이다.

(11) 17세기 경부터 서인도제도의 사탕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 '歴史的 斷絶'이었다는 가설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영국 및 프랑스 식민지인 카리브 연안 플란테이션 농업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주시킨 흑인 노예노동을 이용, 유럽시장을 겨냥한 사탕 단작(monoculture)을 수행했던 것이다. 사탕을 비롯하여 커피, 담배, 인디고 등 중남미의 노예생산물과 영국의 공산품 교환은 당사자국들 무역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큰 비중이었고 이들 열대산물은 영국의 홍차음용 관습의 확대와 함께 소비생활을 자극하고 노동의욕을 고취했다고까지 표현된다[Higman(2000), Eltis and Engerman(2000) 참조].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자본이동 등 고려할 점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조달항목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Ward(1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무역의 대중은 유럽과, 또 미국독립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지역과의 교역은 미미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Engerman(1994)]. 여기서 ‘輸出主導型成長’ 같은 요즈음 開發途上國의 논리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수출시장이 없었어도 자원을 내수산업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開放經濟의 장점이라면 농업생산이 부족하더라도 식량수입에 의해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었다는 정도였을 뿐이다[Mokyr(1993, p. 74)]. 帝國主義의 이점에 관한 논의에서는 인도와의 교역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도 안 되었고 공업화 당시에 가장 큰 식민지인 미국을 잃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이 경제적 이득보다 컸다는 등의 계산은 아직 공허한 수준에 머무는 듯 보인다[예를 들면, Davis and Huttenback(1986)].⁽¹²⁾ 한마디로 해외시장의 존재가 산업혁명을 주도했다는 가설은 뒷받침하기 어렵다. 만일 영국산업혁명이 地主商業資本과 궤를 같이했다는 주장이 맞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Daunton(1989); Porter(1990)].

5. 技術革新

초중등 교육에서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개량된 방적기, 직포기라든가 새로 등장한 증기기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산업조직이나 사회적 변화, 거시지표의 성장보다 만져지고 보이는 각종기계, 석탄 등 새로운 에너지, 합성원자재 등이 부각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Landes(1969)]. 실제로 백만 관람객을 기록한 1851년 런던의 수정궁 박람회에 출품한 품목들은 기술진보가 체화된(embodied) 소비재와 자본재들로서, 영국이 ‘세계의 작업장(workshop of the world)’임을 과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앞서 인용한대로 “산업혁명이란 기술적 창조성에 의해 추진된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 하며, “산업혁명은 巨視發明(macroinventions)의 동시다발적 군집(cluster)과 이의 개선과 조정을 위한 강렬한 노력, 이에 따르는 微視發明 또는 小發明(microinventions)의 보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소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미미한 부가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시발명은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신기술을 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증기기관, 방적기, 자카르직포기, 가스조명, 염소표백 등이 여기 속한다. 거시발명의 군집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¹³⁾ 영국의 경우 기능공들의 층이 두텁고 이들의 교류가 활발하

(12) 주요 반론으로는 Hobson(1993), Offer(1993) 등이 있다.

여 소발명에 비교우위가 있었으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Mokyr(1993, pp. 18-22), Mokyr(1994)].

발명과 技術革新(innovation) 및 傳播(diffusion)의 구분, 기술진보의 요소바이어스, 과학과 기술의 관계, 경로종속 등 개념 및 분석들은 양동휴(2001)를 참조하기 바람이며 여기서는 당시 여타 유럽에 비해 영국이 생산기술에서 우위를 누렸던 요인들에 대해 모키르 [Mokyr(1990, ch. 10)]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숙련공층이 두터운 원인으로 기술이전을 자극하는 徒弟制度和 現場訓練(OJT)을 들 수 있다. 종교전쟁 후 고급두뇌가 영국으로 이주한 사실도 이점이다. 정보의 전파를 담당한 상층부 집단인 Literary and Philosophical Society(Manchester)와 Lunar Society(Birmingham) 등의 역할도 컸다. 통합된 시장과 정치적 응집력이 기술진보를 자극하였다. 사유재산보호 및 일찍 발명된 특허제도 또한 기술향상과 관련이 있다. 기업가들이 많아 발명을 상품화하는 경향 또한 높았다. 이리하여 일단 소발명들이 거시발명을 중심으로 군집하게 되면 模倣效果, 補完效果들이 따라 상승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저항세력이 얼마나 政治力을 가졌는지도 문제이다. 흔히 생각하는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여 실업을 양산하므로 미숙련노동자들의 저항이 심했다는 가설은 사실과 맞지 않다. 산업혁명기 勞動資本比率는 거의 불변이었으며 기술변화의 요소바이어스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기존기업 및 숙련공들이 타격을 입어 저항이 컸다. 수직포공, 모직완성공, 인쇄업자, 마차제조, 대장간 등이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들은 가격하락으로 이득을 보는 소비자들에 비해 소수이나 조직력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1750-1850년 영국의 정치력은 土地財産에 있었으므로 저항운동은 거의 실패하였고 탄압받았다. 대륙유럽보다 장인길드의 힘이 약해 대규모시장을 상대로 대량생산을 시작할 유인이 컸다는 점도 지적된다.⁽¹⁴⁾

이와 같은 영국의 이점이 19세기 말에는 소진되고 저항세력이 커졌으며 2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과학기술교육을 등한시하여 1867년 파리박람회 즈음에서는 이미 영국의 우위상실이 보인다. 소위 슈페터 가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철강, 전기, 화학, 내연기관의 경우 두드러진다[양동휴(1994, 제6장)]. 그러나 이것은 이글에서 다루는 시기보다 훨씬 후

(13) 발명의 cluster 설명으로는 critical mass model, positive feedback, virtuous circle 등이 있으나 전부 적용하기에 난점이 있다[Mokyr(1994)].

(14) 장인길드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된 지대추구 집단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숙련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었으며 기술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Epstein(1998)].

의 일이다.

6. 資本調達

산업혁명기에 설립된 새로운 회사들의 初期資本, 또는 기존기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 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외부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친지의 도움이나 이윤 재투자 등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통설이었다[예를 들어, Pollard(1964)]. 기껏해야 지방은행(country bank)에서 短期商業金融을 얻어 유동성을 충족시키고 유보이윤으로 고정자본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720년의 남해포말사건(South Sea Bubble) 이후 주식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여 자본시장발달을 저해했다는 전통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존 로(John Law) 체제 붕괴 이후의 프랑스 자본시장의 정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금융제도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¹⁵⁾ 영국의 “金融革命, 1688-1750?” [Neal(1990)]이 외부자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산업혁명기 기업들의 성장과 과연 무관한 것이었을까. 자본시장이 더욱 취약했다라면 공업화가 지연되었을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이었더라면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을지,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검증하기가 곤란한 가상적 가설이지만 産業革命과 “金融革命”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을 부정하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리차드슨 [Richardson(1989)]은 流動資本보다 固定資本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는 전통설에서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정통”을 소개한 다음 이를 통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경제수준의 고정자본 비중의 상승은 개별기업마다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본비율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개별기업수준에서는 설립초기와 확장투자 시 특히 固定資本比率이 높고 이후 서서히 낮아짐을 밝혀내었다. 산업이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 또는 설비확장 때문에 고정자본비율이 완만히 상승하거나 안정적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부자본 필요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고전적인 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방법론적 약점, 자료부족, 자료

(15)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1711년 정부부채를 주식전환함으로써 설립되어 중남미무역, 이후에는 노예무역을 독점하며 주가가격이 1720년 1월에서 7월말까지 £150에서 £1,000으로 오르는 등 거품을 형성했다. 1720년 7월 11일부터 1825년까지 발효하였던 Bubble Act는 따라서 남해회사 거품붕괴의 대응이 아니었고 오히려 남해회사의 주가 연착륙을 위한 로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Bubble Act는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가했지만 common law보다 그다지 더 심했던 것도 아니다[Harris(1994, 1997) 참조].

〈表 5〉英國의 投資率 (단위: %)

연도	1761/70	1771	1781	1791	1801	1811	1821	1831	1841	1851/60
투자율	6.8	8.1	8.0	8.5	8.4	10.1	10.7	9.7	10.8	9.7

資料: 본문 및 Crafts(1985a), Feinstein(1988a).

해석의 문제 등으로 연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바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 방향의 접근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당시 영국의 投資率이 후발공업국이나 요즈음 개발도상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페인스틴(Feinstein(1988a))의 자본형성액을 크라프츠(Crafts(1985a))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투자율은 〈表 5〉와 같다. 이와 같이 투자율이 낮은 연유는 어디에 있을까, 자본형성의 미약함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초기 공장들의 진입소요자본이 얼마 안 된다는 投資需要不足說과(Crafts(1987)) 나폴레옹전쟁수행에 필요한 공채발행이 야기하였던 자본시장에서의 驅逐效果(crowding-out)논의(Williamson(1984, 1987))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은 “두 뒤뚱거리는 갯난쟁이가 서로 비누방울을 불어대며 싸우는 것과 같아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Mokyr(1987, p. 308)). 구축효과존재의 한 가지 검증방법은 利率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임과 미로스키(Heim and Mirowski(1987))는 전쟁기간 중 실질이자율이 오히려 낮았음을 근거로 구축효과설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낮다는 자료를 들어 당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지역별로도 통합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Clark(2001b)는 정부차입이 구축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인구증가 때문에 GDP 대비 지대수입을 줄여 다른 자산소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이완시켜 자본수익률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이러한 접근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영국이 18세기 중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본수입을 기록했다는 추론이 브레지스(Brezis(1995))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임라(Imlah(1958))의 방법을 원용하여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추계에서 資本移動量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 투자액의 1/3이나 달하는 액수였다. 특히 네덜란드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외자유입이 투자로 연결되는 매개항을 商人銀行(merchant banking)에 의한 운전자본조달로 “推測”하고 있다. 방법론상의 문제와 페인스틴(Feinstein(1988a))의 추계를 간과한 점 등의 문제가 있을 듯 하지만 상인은행의 역할에 주목한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산업혁명의 자본조달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해 본다.

더 나아가서 라이트(Wright(1997, 1999))는 1815년 영국의 海外債務가 7억 9,200만 파

운드에 달하여 국민소득의 2.5배 가량이 되었으며 海外貯蓄이 전비부담에 도움을 준 만큼 구축효과를 완화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꾸엔카 에스테반[Cuenca Esteban(2001)]의 새로운 국제수지 추계에서는 1772-1820년 기간 무역수지 적자를 하향 조정하고 운송비 수입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외국 자본의 역할을 반박하고 대신 인도로부터 자본 이전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납공' 액수 이외에 인도와의 무역, 즉 생사, 인디고, 초석 등의 수입에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월등하게 낮게 책정됨으로써 얻은 이익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쟁비용 충당과 경상수지 흑자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영국산업혁명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제시된 셈이다.

7. 勞動供給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업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해석이었다. 이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제고, 해외이민의 유입,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가사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의 이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당시 노동시장은 地理的·階層別·職種別로 分割되어 있었고 移動性과 供給彈力性도 그다지 높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가설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예를 들어, Pollard(1978)).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차례로 검토하여 보자.

영국인구사의 경우 캠브리지그룹이 20여년간에 걸쳐 404개 교구의 기록을 수집·분석함으로써 거의 새로운 인구추계(1541-1871) 및 이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Wrigley and Schofield(1981), Wrigley(1983)]. 그 결과 1540-1640년 기간에는 이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人口成長이 더 빨랐고 1656-1686년 기간에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또 18세기 중에는 성장률이 더 높았다는, 즉 18세기 동안 계속하여 19세기 초까지 1815년을 정점으로 出生率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새로운 인구동태를 밝혀내었다. 또한 결혼출산율보다 초혼연령의 저하와 미혼율의 감소가 출산율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成分分析(component study)을 통해 확인되었다. 리글리 외[Wrigley et al.(1997)]의 결과는 결혼출산율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은 산모의 영양상태 향상에 따른 유산 및 사산의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고 한다[Wrigley(1998)].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프랑스의 경우 공업화기간 중에도 인구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공업화보다 선행하였는데 영국은 공업화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人口增加가 經濟成長에서 기인하였는가 혹은 인구증가가 공업화를 촉진하였는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예를 들면, Habakkuk(1963)). 이러한 논의는 곧 인구증가의 원인이 出生率의 증가인가 死亡率의 감소인가 하는 방향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게 하였는데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인구증가는 출생률급증에 보다 크게 기인했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것이다.⁽¹⁶⁾ 물론 19세기 후반의 인구증가는 사망률 감소에 의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Goldstone(1986)). 원래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는 논란은 인구증가의 外生性 여부를 따져서 공업화와와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당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 것은 결핵, 콜레라 등 영양결핍질병의 쇠퇴였으므로, 즉 출산뿐 아니라 사망도 경제적 요인, 즉 영양상태의 호전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므로(McKeown(1976), Fogel(1986)), 출생률인가 사망률인가로의 질문전환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결국 당시 인구와 경제의 움직임은 相互作用關係라 해야 할 것이다.⁽¹⁷⁾ 그러나 인구증가가 외생적이 아니더라도 공업화기간 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격도 바뀌어 갔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勞動市場의 分割과 移動性缺如는 이 장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즉 임금격차가 크더라도 장거리이주는 전통적 관습에 의해, 또는 구빈법이나 이주금지법의 유산에서 오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꺼려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운 것이 특히 1830년대 이후에 유입된 대규모 아일랜드 이주민이었다(Pollard(1978)).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미숙련노동자들이었고 공장보다는 농촌지역에 정착하였다. 광산이나 토건업에 취업한 아일랜드 이주민들도 있었지만 1841년까지도 그 숫자는 불과 얼마 안 되어 영국의 총노동자수요와 비교할 때 최대한으로 잡아도 9% 정도이므로, 물론 이만해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Williamson(1986)). 다만 相對的 過剩人口를 증대시킴으로써 값싼 노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면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의 勞動力移動은 소위 “農業革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17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농업혁명⁽¹⁸⁾의 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클로버와 순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윤작체계를 확립하고 곡물 및 가

(16) 당시 출생률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다수있다(예를 들면, Lindert(1983)).

(17) 영양결핍질병이라 볼 수 없는 천연두, 페스트, 장티푸스 등이 창궐하던 시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18) 농업혁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산업혁명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직전을 지칭하는 것이 전통적 설명이라면 최근의 연구들은 훨씬 이전의 시기, 즉 1600-1750년을 농업생산성의 빠른 증가기간으로 본다(Clark(1993), Allen(1999)). 심지어 ‘농업혁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Clark(1993)).

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비료 및 농기계를 도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량했다는 등이다 [Mingay(ed.)(1977)]. 그 결과 농업생산성이 증대하여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할 만큼 식량공급이 증가하였고 농업부문에서 잉여노동력을 배출하여 산업노동자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農業生産性 向上이 영농규모의 확대에 따른 TFP의 상승에서 온 것인지, 질소화합작물 형태로서의 자본형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견 양자가 상호배타적인 가설인지 분명치 않다[Clark(1991), Allen(1991)]. 개방경지를 사유화하는 인클로저가 신농법 도입을 촉진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전통적 설명도 효과적으로 반박되고 있다[Clark(1998, 1999)].

농업혁명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즉 농산물자급도 추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여보면 인클로저 및 신농법 도입의 선도지역인 잉글랜드의 경우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지로부터의 食糧輸入이 계속 상당한 비중(추계에 따라 산업혁명기간 식량소요량의 50% 가까이)을 유지했다는 것이며 오히려 영국농업의 황금기는 19세기 후반으로 늦추어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760년대부터 아일랜드에서 육류를, 나중에는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1795-1815년 전쟁 중에는 곡가가 급상승하고 수입이 더욱 급증하였고 특히 남부 잉글랜드쪽에 타격이 심했다. 1815-1846년간에는 穀物輸入制限法(Corn Law)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수입은 계속 증가하였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중 브리튼섬 음식물 생산의 1/3 가량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잉글랜드만 따지면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수입농산물때문에 남부잉글랜드 농업이 극히 피폐하였음은 당연하다[Thomas(1982)].

<表 6> 브리튼: 農産物價額에 對比한 飲食物輸入(年平均 經常價格)

	농림수산업소득 (£1000)	음식물수입 (£1000)	수입액비중 (%)	재수출을 제외한 순수입액 비중(%)
1814-1816	91,700	31,127	34.0	23.2
1824-1826	77,500	25,758	33.2	27.3
1834-1836	89,700	28,465	31.7	27.2
1844-1846	103,200	34,657	33.7	29.9
1854-1856	112,700	52,769	46.7	41.7

資料: Thomas(1982, p. 148).

(19) 이에 더하여 농업소득의 증대가 공산품수요를 확대시키고 농기구제조를 위해 철강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자본, 경영방법, 기술 등을 공업부문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까지 있다[Bairoch(1969)].

곡물법폐지에 의해 영농구성이 목축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오히려 가축의 분뇨라는 풍부한 비료덕택에 곡물수확량도 늘고 새로운 농업경영방법이 확산되어 1847-70년간의 소위 “黃金期”를 맞게 되는 것이다[Hueckel(1981)]. 또한 농업혁명이 인클로저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추계된 인클로저 진행의 시계열과 일치하지도 않는다.⁽²⁰⁾ 여타 국가의 농업생산성의 비교에 있어서도 당시 관찰자들의 기록과는 반대로 18세기 영국의 농업생산성은 프랑스나 아일랜드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Allen and O'Grada(1988), Schmitt(1990)].⁽²¹⁾ 오히려 최근의 1300-1800년간 유럽 각국 農業勞動生産性 재검토에 의하면 영국, 네덜란드의 우위가 확연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는 정체하였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Allen(2000)].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기는 하였어도 급증하는 인구의 식량수요를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충당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터인데 위와 같이 영국의 농업생산성의 우월성이 자료로서 입증이 안 된다는 현상은 “不可思議”(food puzzle)라고까지 지칭되고 있다. 농산물이 아닌 식품수요의 증가, 식품수요소득탄력성의 급감, 도시화와 공업화가 식품수요를 억제하였다는 등등의 설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Clark, Huberman, and Lindert(1995)]. 영국의 농업생산성 추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Tranter(1990)].⁽²²⁾

人口增加와 農業革命은 다같이 勞動供給과 연관이 있게 되어 산업혁명기 노동공급의 원천이 인클로저인가 인구증가인가를 따지는 것이 고전적인 논쟁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당시 노동력의 지역별(특히 장거리) 및 부문별 이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인구가 공급과잉인 남부농업지대에서 북부공업지대로 노동력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격차도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인구증가도, 농업부문에서의 노동력배출도 산업노동자공급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

(20) Leicestershire의 사례를 보면 1550년까지 총경작지의 45.0%, 1599년까지 2.0%, 1699년까지 24.0%, 1799년까지 13.0%, 1914년까지 11.6%, 그 이후 4.6%가 인클로저되었다[Wordie(1983)]. 이것은 Leicestershire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Clark(1998)에 따르면 1600-1720년간에는 인클로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760년경 이후 급신장하고 있다. Clark and Clark(2001)는 공동지의 잔존율을 1600년 26.6%, 1700년 21.5%, 1750년 19.5%, 1800년 7.5%로 보고하고 있다.

(21) Brunt(2003)는 Arthur Young의 기록을 경작지 규모, 경작가능 면적을 등에 따라 조정하면 훨씬 믿을 만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식량수요를 과다추정한 면이 있다. 새로운 소득, 임금자료[Feinstein(1998)]가 ‘불가사의’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것이다. 인클로저의 경우 공동지의 사유화와 관습소작권의 박탈⁽²³⁾ 등으로 농민들을 농토에서 축출하였다는 면이(물론 임노동자의 창출,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등의 의미가 더 큰 측면이겠지만) 주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노팅검셔(Nottinghamshire)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인클로저지역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챔버스(Chambers (1953))의 연구는 인클로저로 신농법도입이 가능하여 휴한지가 없어지므로 노동력이 더 필요했다는 점, 인클로저사업 자체가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점 등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혁명기 의회인클로저는 산업노동자형성과 무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타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시기도 확장했을 경우 인클로저가 이주를 초래했다는 회귀분석이 나오고 있다(Crafts(1978)). 다만 이 시기의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절대적 증감보다 상대적 감소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업노동자의 비중이 1688년에 56%, 1759년 48%, 1801년 36%, 1841년 21%로 하락한 것을 인클로저를 통해서건 아니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농업생산성향상으로 잉여노동력이 도시산업부문에 배출되었을 것인가. 인구증가와 농산물수요의 소득탄력성에서 수요량을 계산하고 적절한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농산물수급의 상태에 따라 工業化 또는 脫工業化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크라프츠(Crafts(1980))는 소득탄력성을 0.73, 생산함수에서 농업노동의 가중치를 0.4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1700-1760년 기간에는 농업과잉노동이 배출되었으나 1760-1800년 기간에는 무리한 공업화로 농업노동을 흡인, 농업부문에 압력을 가하여 식량부족과 농산물가격상승을 초래하였으며 1820-1840년 기간에는 대규모 식량수입에 의하여서만 농업노동력의 배출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산업혁명기간에 勞動時間이 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어렵짐작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Bienfeld(1972)). 포쓰(Voth(1998, 2001))는 재판 기록을 이용하여 1750-1800년의 런던, 1760-1830년의 잉글랜드의 연간 성인 남성 노동시간을 추정하였다. 범죄는 아무 때나 일어나므로 범죄발생일과 그 전날 증인들의 기상, 출근, 식사, 퇴근, 취침 등 행적을 추적하면 노동시간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만 기록한다면 1750년(1749-1763년) 런던 연간 2,631시간에서 1800년(1799-1803년)

(23) 공동지 이용권과 관습소작권이 하층농민에게 원래 그다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클로저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 별로 없었고 하층 농민의 노동자화(proletarianization)는 의회 인클로저 이전에 이미 거의 완성되었다는 최근 연구가 있다(Shaw-Taylor(2001)). 또한 인클로저 이후에도 소규모 채마밭을 가구마다 할당하여 여성이나 아동들이 감자 및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게 한 경우도 논의되고 있다(Moselle(1995)).

(24) Feinstein(1998), Clark(1999), Clark and Clark(2001), Allen(1999) 등의 새로운 추계 때문에 이 결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 3,538시간으로, 잉글랜드의 경우 1760년 2,576시간, 1800년 3,328시간, 1830년 3,356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과 TFP 추계를 하향 조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여가를 고려할 때 生活水準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勞動力 參與率이나 就業率에 관한 정보도 부문별, 계절별, 지역별로 얻을 수 있었는데 양자 모두 평균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산업노동자의 공급은 量的인 문제라기보다는 質的인 문제라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다. 노동의 본질적 변화, 즉 작업장노동, 선대제노동에서 시간관념과 규율이 강제되는 近代的 工場勞動으로의 변화를 고찰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과정은 절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른 각도로 고찰하기로 하자.

8. 工場制와 家政經濟의 變貌

이 글의 2장에서 “産業組織說”이라 명명한 견해를 따른다면 기계나 새로운 기술만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기존 생산양식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생산수단과 함께 생산조직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이용하여 원료 및 도구를 대여하고 일정기간 후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던 선대제공업으로서는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노동자를 한 곳에 모아 과업별 감독을 시행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工場生産制度가 성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공장제의 본질은 기계화 자체라기보다 규율이요, 노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조직인 것이다[예를 들면, Marglin (1974, 1975), Berg(1985)]. 선대제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통제의 취약성에 있었으며 18세기 후반 농촌의 가내수공업자들이 일터를 공장으로 옮기는 데에 극력 저항하였음을 보더라도 산업조직설의 주창자들의 견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조직의 혁명적 변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산업혁명기의 가장 천재적인 경영자들에게도 근로자로 하여금 시간을 엄수하고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케 하는 데에는 수십 년에 걸친 회유와 강제를 필요로 하였다[Pollard (1963)]. 이는 산업혁명 전까지 인류가 자연과 조화된 불규칙한 생활의 리듬에 오래 익숙해 있었던 데 기인한다. 농업, 목축, 어로 등 계절에 따라 일의 강도가 바뀌는 생업에

(25) 한편 일당을 성과급으로 나누어 1일 노동시간을 추정하고 연간 임금을 일당으로 나누어 연간 노동일을 구하는 방식으로 농촌노동의 노동투입을 추계한 결과는 1450-1500년 이후 1850년 정도까지 농촌노동시간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lark and van der Werf(1998) 참조].

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업에서도 일의 불규칙한 리듬은 장기간 잔존하였다. 선대제하의 가내 수공업자들이 누렸던 소위 성월요일(St. Monday)의 관습이 19세기 후반까지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대개 제품 회수와 다음 주에 필요한 원료의 보급이 토요일 저녁에 행해졌으므로 가내수공업자들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미친듯이 일하고 주말에는 지나친 음주 및 향락으로 탈진하여 월요일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쉬었다. 기계화된 공장에서는 과업위주의 노동보다 동일한 시간에 상호조정된 規則的인 勞動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러한 불규칙한 리듬을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가 계급 특히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에게 時間觀念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감리교와 복음주의 등 종교적 계몽, 교화와 공장에서의 각종 금전적, 신체적 강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 계급은 기계 파괴 운동, 태업 등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세대가 교체되면서 勞動運動도 규칙적인 노동리듬의 한계 내에서 勞動時間을 短縮하려는 운동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토요일 오전근무, 하루 10시간 노동 등이 주창되면서 성월요일은 19세기 후반에 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Thompson(1967), Reid(1976, 1996)].⁽²⁶⁾ 이와 같이 아마도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본능인 인류로부터 정확하고 능률적인 산업노동자 계층을 형성하는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이 공장취업을 군대나 감옥에 가는 것처럼 여겼다는 기록도 허다하다[Mantoux(1928, p. 409)]. 그러나 공장제의 궁극적 성패는 技術進步를 동반하였느냐에 달려있고[Mokyr(1993, p. 111)],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취득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규율에 동참하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Clark(1994)].⁽²⁷⁾ 공장제성립에 관한 또 하나의 설명은 去來費用節減說인데 이는 코우즈[Coase(1937)]의 관점을 이어받은 듯이 보인다[Williamson(1991)]. 미국에 비해 영국 노동자들이 공장규율에 늦게 적응한 것은 영국농업노동의 계절성이 더 심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Sokoloff and Dollar(1991)].

공장생산에 적합한 産業勞動者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성, 아동, 부랑자, 해외이민 등 한계적 노동에 크게 의존함이 불가피하였다. 여성 및 아동노동의 동원은 이를 가능케 한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과 교육, 가족제도 등 사회적, 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새로

(26) Reid(1976)는 1766-1876년 기간 당시 Birmingham 사람들의 기록에 의거하여 성월요일 관습이 19세기 후반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최근 Birmingham, Bristol, Blackburn, Manchester의 결혼기록을 분석하여 월요일에 오전 일을 하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비율이 20세기 초까지 높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하였다[Reid(1996) 참조].

(27) Clark(1994)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글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림과 표를 잘 보면 오류가 분명하며, 글 자체도 허수아비를 찌르는 식으로 되어 있다.

〈表 7〉英國 各 産業에서의 兒童雇傭狀況(1833-1834)

산업	최소고용연령 (세)	연소자의 연령분포 (세)	일일평균 노동시간 (시간)	총노동자수에 대한 16세미만 아동의 비율(%)
면직	8	8-18	13	35
레이스	4	4-14	12-13	40
모직	6	6-18	12-13	40
견직	6	6-18	12-14	46
아마	6	7-14	12-13	40
탄광	4	4-12	8-18	22
금속광산·지하 ·노변	7 5	7-12 5-12	8 10-12	- -
글썩소제	4	4-8	12	-

資料: 양동휴(1994, p. 298).

은 생산기술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제니와 수력방직기 시대의 방직기술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었으며⁽²⁸⁾ 또한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연소노동의 이점은 더욱 중요한 곳에 있었다. 약한 체력의 근로 어린이들은 유순하였고, 성년노동자보다 수동적인 복종의 상대로 통제하기 용이하였으며 임금 부담도 극미하였던 것이다.

〈表 7〉은 산업혁명 말기에도 兒童勞動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통일된 아동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곳에 따라서는 부랑아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Cunningham(1990)] 취업아동들은 공장도시에 밀집하여 가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공장규율과 정확성에 단련된 새로운 근대적 산업노동자세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Nardinelli(1990)].

〈表 7〉에서 나타난 最小雇傭年齡은 최근 미시자료(household budget data)를 이용한 호렐과 험프리즈(Horrell and Humphries(1995b))의 연구결과를 밀두고 있다. 세심한 분석을 통한 그들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공업화초기에 아동노동과 아동의 공장노동이 증가하였으며 최소고용연령이 낮아졌다. 노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은 家計構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연소자들이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동생들로 하여금 가계소득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공업화가 아동노동

(28) 1833년의 자료에 의하면 상당기간의 직업훈련(OJT)이 필요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연구가 있다(Boot(1995)).

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아동노동이 감소추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여아와 남아에 따라 노동시장변화의 효과가 달랐던 까닭으로 이후 노동의 性別分業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으나 미시적 자료의 뒷받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자극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계연보자료는 다방면에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産業革命과 家族關係의 變貌와의 관계는 최근 여성사학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각도로 재조명되고 있다. 앨리스 클라크[Clark(1919)], 아이비 핀치벡[Pinchbeck(1930)] 등 고전을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시장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두드러진 核家族의 대두를 살펴보자. 이전에는 가족구성원이 여가생활을 함께 하지 않고 남성은 선술집, 여성은 뜨게질이나 잡담 등 성별로 구분된 집단행위로 저녁시간을 보내었으며 출산(세례), 결혼, 장례 등 집안행사도 온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共同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전통적 패턴이었다. 가정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이웃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샤리바리(charivari) 등이 이러한 전통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말 19세기 초 중산층으로부터 이러한 관습이 사라지고 共同體보다는 親族에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졌다.⁽²⁹⁾ 이것은 또 여성의 임노동자화에도 관련이 있다. 면공장의 경우 성인이나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직물업의 경우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 기계화되지 않은 전통부문에의 취업이 훨씬 많았다. 1851년 통계를 보더라도 여성 노동인구의 40%가 가내하녀나 가정부였다. 이는 都市의 性格에 따라 雇傭形態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레스톤(Preston)이나 스톡포트(Stockport) 등 직물공업도시에서는 14세 소녀의 76%가 공장노동자였고 30세 미만 공장노동자의 40%가 여성이었으나, 요크(York)같은 상업도시에는 여성노동의 60%가 가내하녀였으며 30% 정도는 수공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하였고 린네르 등 근대적 부문에는 1% 정도가 고용되는 데 머물렀다. 광업도시 등에서는 여성의 광산노동참여율이 매우 낮았고 반 이상의 여성은 소상공업이나 의류제조 등에 고용되었다. 공장여성노동 중 연소자나 미혼녀, 독신녀의 비중이 컸던 것은 따로 지적할

(29) 이는 지방주의 “도덕경제”(Thompson(1971)의 용어를 원용한다면)가 쇠퇴하고 시장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하였으며 가족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성의 모성본능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의 약화 및 촌락원로나 사제의 도덕적 권위 하락 등도 이러한 家族中心主義(domesticity) 강화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었다[Shorter(1975, chs. 6-7)].

〈表 8〉 既婚女性の 勞動參與率 推移 (단위: %)

	고임금 농업	저임금 농업	광업	공장	outwork (옥외노동)	상업	임시직	계
1787-1815	54.8 (42)	84.9 (99)	40.0 (5)	36.8 (19)	45.5 (22)	62.5 (8)	100.0 (1)	65.7 (196)
1816-1820	34.2 (38)	-	27.8 (54)	4.2 (24)	41.9 (198)	30.0 (30)	66.7 (3)	49.4 (347)
1821-1840	22.2 (45)	84.6 (136)	33.3 (6)	85.7 (28)	54.3 (94)	62.5 (8)	66.7 (12)	61.7 (329)
1841-1845	40.0 (5)	55.6 (9)	9.4 (32)	100.0 (2)	72.7 (44)	100.0 (1)	0.0 (1)	57.5 (94)
1846-1865	47.8 (46)	63.0 (81)	0.0 (1)	100.0 (5)	69.1 (55)	42.9 (7)	-	45.3 (195)

註: 가계연보자료에서 추계한 것이므로 관측치의 수가 서로 달라 소그룹끼리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괄호안은 관측치의 수.

資料: Horrell and Humphries(1995a, p. 98)에서 계산.

필요가 없다(Tilly and Scott(1978, ch. 4, 특히 p. 87, 표 4-5)). 그러나 〈表 8〉에서 보듯이 기혼녀의 노동참여율도 상당히 높아서 공업화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였다는 가설도 기각할 수가 없다(Horrell and Humphries(1995a)).

가장 큰 변화라면 남성과 여성의 일터가 분리되었다는 것과 임금노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톨리와 스콧(Tilly and Scott(1978))의 개념을 쓴다면 “家計生産樣式”에서 “家族賃金經濟”로 이행한 것이다. 농경이나 선대제가내공업시기에는 가족의 일터가 가정 내에 국한되었는데 都市化와 工場制生産의 확대로 가족구성원의 일하는 장소가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일터의 분리는 핵가족의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를 소원하게 한 경향도 있었고 이에 따라 가부장의 권위가 하락하는 면이 있기도 하였다.

반면 산업혁명과 자본제의 도래가 가부장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여성학적 입장도 만만치 않다. 가부장제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勞動市場의 性的差別을 공고히 하였으며 가정으로부터 일을 분리시켜 男女依存關係를 변모시켰다는 것이다(Hartman(1976)). 노동과정에서의 숙련도는 근육의 힘과는 상관없이 없는데도 성별로 구분하여 賃金隔差를 正當化하였다는 주장도 있다[Rose(1986)].⁽³⁰⁾

당시 技術進歩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기계나 생산과정의

혁신이 값싸고 유순한 여성 및 아동노동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Marglin(1974)]. 전통적인 숙련공들의 관습이나 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노동공급의 원천이 신기술에 융합될 수 있다는 이점(기술적 및 이윤동기를 포함하여)을 발명가나 제조업자들이 포착하였다는 것이다. 국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구빈당국자들의 이해와 위와 같은 요인이 결합하여 기술진보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가설까지 등장하고 있다[Berg(1993)]. 이 역시 수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될 때까지 평가를 유보하는 수밖에 없다.

家政經濟의 변모 논의는 자연스럽게 프로토工業化論(proto-industrialization)과 연결된다. 멘델스(Mendels(1972))에 의해 주창되어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에 의해 확산된 이 견해는 선대제가 16세기 이후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전된 형태인 農村手工業이 공업화의 첫단계(proto-industry)이며, 그 두 번째 단계인 産業革命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다고 한다. 농민들이 유희노동력을 이용, 상인자본의 지배하에 원격지시장을 상대로 제조업제품을 생산하는 이 형태는 자본이 노동조건에 신속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결과로 농촌부문의 봉건질서가 해체되고 농업지역별로 생산이 특화되었으며, 농촌인구가 증가하고 가족내 분업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Kriedte, Medick, and Schlumbohm(1981, 1993)]. 이 학설은 많은 이론적, 실증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빈곤한 지역인 목초지나 산간지역에 값싼 유희노동력이 많아 농촌수공업이 번성했다는 설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토공업’ 지역이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고 부유한 농촌인 경우가 많았다. 농촌수공업지역의 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가족규모도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수공업의 도래 이전과 그 이후의 결혼관습이나 출산행위에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족공동체적 멘탈리티는 농촌수공업이 확산되기 오래전에 쇠퇴하였고 개인주의는 훨씬 일찍 도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인 사실이 부인되는 것 외에 프로토공업이 산업혁명을 불러 일으켰다는 추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따른다. 즉 농촌수공업이 자본축적에 의해 공장건설을 가능케 하였고, 인구를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촉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자본형성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노동공급도 프로토공업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았다는

(30) 특히 물방적기의 작동을 남성이 독점한 것은 기술적으로 하등 이유가 없으며 10시간 노동운동 등도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Valverde(1988)]. 또한 18세기에 농업에 있어서도 성별분업이 확산되었다는 논의가 Sharpe(1995, 특히 p. 357)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다방면의 세심한 사례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것이다[Coleman(1983), Houston and Snell(1984), Clarkson(1985)]. 오히려 농촌수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에 배타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다. 노동공급량에서도 문제이나 산업노동자계층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농촌수공업에서 공장제공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러웠을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 공장밀집지역이 선대제수공업 변성지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평업화론은 인구, 가족관계, 사회구조, 농촌수공업, 공장제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들을 자극하였고 아직도 논리적 정합성과 실증적 근거를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Engerman(1992), Mager(1993), Rudolph(1992)]. 농촌수공업이나 노동공급, 또 가족관계의 변모는 救貧制度(Poor Relief)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방면의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나[Landau(1991), Snell(1991, 1992), Brundage, Eastwood, and Mandler(1990)]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만을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자. 영국 구빈제도의 특성은 교구마다 거의 동질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조달되었고 구휼심사가 상대적으로 정규적이었고 비교적 인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빈제도가 교구민들에게 일종의 보험형태로 기능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률은 낮았고 노후보장 등을 위한 필요가 없었으므로 출생률을 저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였으며 해고의 위험이 따르는 임노동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인클로저와 경영규모확대를 촉진시켰다. 자연히 생산성도 증가하고 적어도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농촌인구의 연령구성이 변하기 전까지는 영국경제발전에 일조하였다는 것이다[Solar(1995)].

9. 生活水準 論爭

산업혁명기 하층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가 하락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개입되어 첨예의 관심사일 뿐더러 아직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樂觀論”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悲觀論”은 주로 사회주의 또는 좌익편향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下層民”을 노동자, 공장노동자, 실업자, 극빈층 어느 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 생활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준 기근, 전쟁, 도시화 등의 효과를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난점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生活水準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표는 實質賃金이었다. 실업자추계, 직업구성변화, 가계소비행태의 변화, 경기변동, 적절한 표본추출의 문제, 디플레이터의 선정, 자료의 제약 등으로 난항을 거듭한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약 20년 전까지는 1820년경까지 실질임금의 하락 내지 정체, 1850년까지 임금상승정도 미약[Taylor(1975), Deane(1969)]으로

요약되었으나 그 이후의 실질임금추계는 훨씬 낙관적으로 흐르고 있다. 즉 1760-1820년 기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으나 1850년경까지는 가속적으로 상승하여 1819-1851년간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은 80%(연율 1.9%), 모든 노동자의 임금은 116%나 올랐다는 것이다[Lindert and Williamson(1983b)]. 그러나 이들의 디플레이터선정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부가적인 자료가 이용되어 1750-1813년간 실질임금은 거의 불변이었고 1813-1913년간은 연율 1.2%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수정추계가 제시되었다[Crafts(1985b), Crafts and Mills(1994)]. 런던의 자료를 이용한 스위츠[Schwarz(1985)]의 연구결과는 1750-1800년간 실질임금이 40%나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 다시 50년이 걸렸다는 강력한 비관론을 제기하였는데 지리적인 임금분포를 감안한 비판에 봉착하였다. 즉 런던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북부공업지대의 임금이(농업임금까지도) 높았을 뿐더러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스 스태포드셔(North Staffordshire)의 일반노동자, 목수, 벽돌공, 도자기공들 임금자료로 뒷받침되었다[Hunt and Botham(1987), Hunt(1986)].⁽³¹⁾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부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여성 및 아동의 임금을 고려해야만 “家族”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소득의 상승속도는 낙관론적인 실질임금추계보다 상당히 낮아서 임금이나 소득자료의 평가에 더욱 조심성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Horrell and Humphries(1992)].

임금지표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직접 消費水準을 관찰하는 것도 生活水準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단편적인 기술사료에 의하면 식생활의 경우 일인당 소비가 증가한 품목은 감자, 차, 설탕, 진과 위스키 등이며 밀빵, 육류, 맥주 등의 섭취는 감소하였다. 먼

<表 9> 男性의 實質賃金과 家族所得 上乘速度 (단위: 연율, %)

디플레이터	Horrell & Humphries				Lindert & Williamson 생산직	Crafts
	남성임금		가족소득			
	L&W	Crafts	L&W	Crafts		
1791/95-1846/50	1.23	1.12	0.99	0.88	1.02	0.80
1791/95-1816/20	-0.41	-0.36	0.02	0.06	0.32	0.71
1816/20-1846/50	2.61	2.37	1.81	1.57	1.87	0.94

資料: Horrell and Humphries(1992, p. 871)에서 계산, Lindert and Williamson(1983b), Crafts(1985a).

(31) 더욱 더 비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Feinstein(1998), Clark(2001a)].

직의류나 비누, 양초 등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주거의 경우 주택 자체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상하수도의 불비, 밀집지역 공중위생의 열악함과 전염병에의 노출 등 때문에 주생활 자체가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hompson(1963, ch. 10)]. 消費水準을 더 體系的으로 이용하여 所得水準을 推定한 시도도 있다. 설탕, 차, 담배 등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일인당 소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상대가격효과, 소비구성의 변화, 소득탄력성의 문제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消費函數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득과 가격을 요소로 하는 소비함수를 $Q = f(Y, P)$ 라 하고 자료가 가용한 1855-1900년 기간에서 파라메타를 추정하면 Q 와 P 의 자료를 이용하여 1791-1850년간 Y 의 예측치 \hat{Y} 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결과 \hat{Y} 가 1840년대 말까지 거의 불변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산업혁명기간 동안 생활수준이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Mokyr(1988)]. 물론 소비함수가 해당기간 동안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소득이나 소비 이외에 산업혁명기간 동안의 생활이 어떤 人口學的 結果를 낳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생활수준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勞働者衛生條件調査委員會’(1842) 위원장이었던 채드윅(Chadwick)의 추계에 따르면 18세기 말 이후 계속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역노동자의 경우 위생조건이 극악했던 이유로 평균수명이 20세를 못 미쳤다(表 10) 참조). 티프스, 콜레라, 결핵, 천연두 등의 만연으로 1840년경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노동자계층의 자녀들은 60% 정도가 5세 이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Chadwick(1843, ch. 4)]. 최근 인구사의 발달로 영국의 산업혁명기간 동안 평균수명이 약 35세에서 약 40세로 늘어났고 출생률도 급히 상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지역별, 계층별 추계에서는 채드윅(Chadwick)의 자료를 대신할 것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³²⁾

생활수준 논쟁에 새로 자리를 잡은 생물학적 자료는 신체적 척도, 특히 年齡別 平均身長이다. 人體成長學(auxology)의 진보에 따라 영양상태와 연령별 신장의 관계가 더욱 공고히 밝혀지자 하층민 또는 공장근로자의 복지의 지표로서 역사적 신장기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년이 되기까지의 신체발달은 노동의 강도에 따른 소모분을 제외한 순영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육기의 순영양의 부족은 일차적으로는 키가 크는 시기를 지연시키며 심하면 성년이 되어도 단신으로 머물게 한다. 따라서 연령별 신장의 절대적, 상대적 관찰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Fogel et al.(1983)].

(32) Szreter and Mooney(1998)가 도시의 성격에 따른 사망율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영국의 인구사에 관한 시사를 하고 있다.

〈表 10〉 平均死亡年齡(1842)

	젠트리	상인	노동자
트루로	40	33	28
더비	49	38	21
맨체스터	38	20	17
러트란드셔	52	41	38
볼튼유니온	34	23	18
베트날그린	45	26	16
리즈	44	27	19
리버풀	35	22	15

資料: Chadwick(1843, ch. 4).

Fogel(1994), Tanner(1978)]. 생활수준 논쟁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는 플럿, 왓터와 그레고리(Floud, Wachter, and Gregory(1990, ch. 4)]로서 이들은 신장지표로 판단한 純營養狀態는 1760-1820년간 향상되었으며 그 이후 약 반 세기 가량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820년 이후 실질임금이 향상되었다면 이는 신체적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금자료가 지속적인 복지향상을 시사하는 기간에 신장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임금자료는 하층노동자에 국한하여 추계하였고 신장은 더 포괄적인 대상에서 측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소득수준은 높아지되 도시생활의 비위생과 불건전 때문에 신체발달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코플로스[Komlos(1993)]의 비판대로 身長測定技法(anthropometrics)에 아직 개선가능성이 많은지도 모른다.⁽³³⁾ 1820년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호주로 유형된 범죄자들의 신장은 1770-1815년간 계속 하락하였으며[Nicholas and Steckel(1991)] 런던경시청과 지방경찰기록에 나타난 범죄자들도 1812-1857년 기간 동안 신장하락을 보이고 있다[Johnson and Nicholas(1995)]. 여성과 아동의 신장기록도 산업혁명기간 중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95-1820년간 잉글랜드 여성들의 신장하락은 남성이나 아일랜드여성에게 비해서도 속도가 빨랐으며[Nicholas and Oxley(1993)] 18세기 말까지 출생한 런던머린소사이어티 소년들의 평균키는 지극히 작아서 고금을 막론하고 뉴기니아의 루미족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Floud and Wachter(1982)).⁽³⁴⁾

(33) 이것이 신체적 희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장관련 자료가 계속 분석되면서 영국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시기의 생활수준(?)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Komlos(1998, 1999) 참조]. 특히 Komlos(1998)는 인구와 소득분배에 관한 논쟁적 가설을 내어 놓았는데 차후 논란이 기대된다.

(34) 14세를 기준으로 135.5cm이다. 참고로 한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14세)의 평균신장은

결국 산업혁명기의 생활수준 논쟁의 결과는 實質賃金水準, 消費水準, 健康狀態 어느 척도로 보더라도 낙관론쪽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논쟁의 또 하나의 차원은 산업혁명이 없었더라면 생활수준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하락(또는 상승?)하였을 것인가, 또한 하층민의 상대적 희생을 줄이면서도 같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다분히 沒歷史的인 接近이지만 전자에 관해서는 모키르[Mokyr(1993, p. 120)]를, 후자의 경우는 폰 툰젤만[von Tunzelman(1985)]을 참조하도록 미루어 둔다.

하층민의 절대적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所得分配가 악화되었다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변화가 생활수준 논쟁의 일부로 자리잡아왔다. 쿠즈네츠[Kuznets(1955)]의 고전적 가설대로 공업화 초기의 영국에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지니계수가 1760년에 0.49에서 1800년에 0.52, 1870년에 0.55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1759년에 45.1%에서 1801-1803년에 48.8%, 1867년에 53.7%로 늘어났다[Lindert and Williamson(1983b)].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相對的 過剩人口論, 맬서스의 絶對的 過剩人口論, J.S. 밀의 熟練度 差異論 등이 검증되었으나[Williamson(1985, 1987)] 결과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Feinstein(1988b) 참조]. 오히려 수직적 온정주의적 지방주의 유대사회에서 수평적 계급 사회로 나아감에 따른 하층민의 소외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Thompson(1991, chs. 4-5), Perkin(1969)].

10. 맺 음 말

新經濟史的 방법은 역사연구에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를 조정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질문을 바꿈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질문을 바꿀 수도 없는 문제는 접근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 연구에 있어서도 문제의 제기에 따라 전통적 관념을 타파하고 새롭고 더욱 진실된 역사해석을 낳는 결과가 많지만 오히려 논점을 오도한 경우도 없지 않다. 가장 큰 난점은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경제이론이 주로 靜態的 이론이므로 효율이나 생산성 변화를 限界的으로만(at the margin)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계적 변화란 불과 몇 분의 1, 몇 십분의 1의 분수형태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변

1960년에 149.6cm, 2003년에 167.7cm이다[교육부(2003)].

화가 다각도로 일어났을 때 각각의 한계적 변화의 곱은 더욱 작은 분수를 낳고 이런 식으로는(McClosky의 표현을 따르자면 Harberger의 법칙에 따라) 대규모의 動態的 變化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근대적 경제성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과학상의 스캔들이다” [Landes(1993, p. 151)]. 그러나 정태적 분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靜態分析은 무엇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비용과 수익의 정태적 모형은 가격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cClosky(1994, p. 270)]. 그러나 정태모형이건 동태적 분석틀이건을 막론하고 역사해석에 있어서는 경제현상이라 하더라도 경제학적 이론 이외의 접근이 부가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질문의 형태를 바꾸기도 곤란한 문제들, 예를 들어 하층민의 의식구조, 농민운동, 노동계급의 형성, 노동운동, 낭만주의 같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컨대, 社會史·文化史 學界와의 끊임없는 交流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나가 英國 産業革命의 實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5

팩스: (02)886-4231

E-mail: dyang@snu.ac.kr

參 考 文 獻

교육부(2003): 『2003년도 초·중·등학생 신체검사 결과』.

양동휴(1994): 『미국경제사 탐구』, 서울대 출판부.

_____(1996): “영국산업혁명과 신경제사,” 김종현 편, 『공업화의 체 유형(I)』, 경문사, 49-97.

_____(2001): “기술·경제·역사 연구서설,” 『경제논집』, 40, 2·3, 149-173.

Abramovitz, M.(1993): “The Search for the Sources of Growth: Areas of Ignorance, Old and New,”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3, 217-243.

Allen, R.C.(1991): “Labor Productivity and Farm Size in English Agriculture before

- Mechanization: Reply to Clark,"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8**, 478-492.
- _____ (1999): "Tracking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England," *Economic History Review*, **52**, 209-235.
- _____ (2000): "Economic Structure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urope, 1300-1800,"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4**, 1-25.
- Allen, Robert C., and Cormac O'Gráda(1988): "On the Road Again with Arthur Young: English, Irish, and French Agriculture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8**, 93-116.
- Antras, Pol, and Hans-Joachim Voth(2003): "Factor Prices and Productivity Growth during the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40**, **1**(January), 52-77.
- Bairoch, Paul(1969): "Agricultur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700-1914," *Fontana Economic History of Europe*, **3**, 452-506.
- Berg, Maxine(1985): *The Age of Manufactures*, London, Fontana Press.
- _____ (1993): "What Difference Did Women's Work Make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History Workshop Journal*, **35**, 22-44.
- _____ (2002): "From Imitation to Invention: Creating Commodities in Eighteenth Century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55**, **1**(February), 1-30.
- Berg, Maxine, and Pat Hudson(1992): "Rehabilitat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5**, 24-50.
- Bienfeld, M.A.(1972): *Working Hours in British Industry: An Economic History*, London, Widenfeld and Nicolson.
- Boot, H.M.(1995): "How Skilled Were Lancashire Cotton Factory Workers in 1833?," *Economic History Review*, **48**, 283-303.
- Braudel, Fernand(1984):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New York, Harper and Row.
- Brezis, E.S.(1995): "Foreign Capital Flows in the Century of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New Estimates, Controlled Conjectures," *Economic History Review*, **48**, 46-67.
- Brown, M.B.(1988): "Away with All the Great Arches: Anderson's History of British Capitalism," *New Left Review*, **167**, 2-53.
- Brundage, A., D. Eastwood, and P. Mandler(1990): "Debate: The Making of the New Poor Law Redivivus." *Past and Present*. **127**. 183-201.

- Brunt, Liam(2003): "Rehabilitating Arthur Young," *Economic History Review*, **56**, 265-299.
- Cameron, Rondo(1991): "Review of *The Lever of Riches* by Joel Mokyr," *American Historical Review*, **96**, 1164-1165.
- Cannadine, David(1984): "The Present and the Past in the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1880-1980," *Past and Present*, **103**(May), 131-172.
- Chadwick, E.(1843):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ed.), by M.W. Flinn, 1965, Edinburgh.
- Chambers, J.D.(1953): "Enclosure and Labour Suppl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5**, 319-343.
- Chenery, H.B., and M. Syrquin(1975):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pham, J.H.(1930):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Vol. 1, *The Early Railway Age 1820-1850*, 2nd(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A.(1919): *Working Life of Women in the Seventeenth Century*, London, Routledge.
- Clark, G.(1991): "Labor Productivity and Farm Size in English Agriculture before Mechanization: A Note,"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8**, 248-257.
- _____ (1993): "Too Much Revolution: Agricultur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00-1860" in Mokyr(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 (1994): "Factory Disciplin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4**, 128-163.
- _____ (1998): "Commons Sense: Common Property Rights,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Chang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73-102, also see *JEH* **59**(1999), 447-455.
- _____ (2001a): "The Secret Histor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typescript.
- _____ (2001b): "Debt Deficits, and Crowding Out: England 1727-1840," *European Review of Economic History*, **5**(December), 403-436.
- _____ (2001c): "Farm Wages and Living Standard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 England, 1670-1869," *Economic History Review*, **54**, **3**, 477-505.
- _____ (2002): "Shelter from the Storm: Housing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550-1909,"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2**(June), 489-511.
- Clark, Gregory, and Anthony Clark(2001): "Common Rights to Land in England, 1475-1839,"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1**, 4(December), 1009-1036.
- Clark, G., M. Huberman, and P.H. Lindert(1995): “A British Food Puzzle, 177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48**, 215-237.
- Clark, G., and Y. von der Werf(1998): “Work in Progress? The Industrious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830-843.
- Clarkson, L.A.(1985): *Proto-industrialization: The First Phase of Industri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ase, R.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386-401.
- Coleman, D.C.(1983): “Proto-industrialization: A Concept Too Many,” *Economic History Review*, **36**, 435-448.
- Crafts, N.F.R.(1977):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and France: Some Thoughts on the Question ‘Why Was England First?’,” *Economic History Review*, **30**, 429-441.
- _____ (1978): “Enclosure and Labor Supply Revisited,”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5**, 172-183.
- _____ (1980):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and the Release of Labor by Agriculture during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 Further Appraisal,”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9**, 153-68.
- _____ (1983): “British Economic Growth, 1700-1831: A Review of the Evidence,” *Economic History Review*, **36**.
- _____ (1984): “Economic Growth in France and Britain, 1830-1910: A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49-67.
- _____ (1985a): *British Economic Growt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5b): “English Workers’ Real Wage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Some Remaining Problem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5**, 139-144.
- _____ (1985c):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and the Release of Labor by Agriculture during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 Further Appraisal,” Mokyr, J.(ed.),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otowa, N.J..
- _____ (1987): “British Economic Growth, 1700-1850: Some Difficulties of Interpret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4**, 245-268.
- _____ (1989): “British Industrializ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9**, 415-428.

_____ (1994):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N. McCloskey (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2nd(ed.),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4-59.

_____ (1995): "Exogenous or Endogenous Growth? The Industrial Revolution Reconsidere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5**, 745-772.

_____ (1996):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 Guided Tour for Growth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6**, 197-201.

_____ (2004): "Productivity Growth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Growth Accounting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4**, 2(June), 521-535.

Crafts, N.F.R., and C.K. Harley(1992): "Output Growth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 Restatement of the Crafts-Harley View," *Economic History Review*, **45**, 703-730.

Crafts, N.F.R., and T.C. Mills(1994a): "Trends in Real Wages in Britain, 1750-1913,"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1**, 176-194.

_____ (1994b):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a Macroeconomic Epoch: An Alternative View," *Economic History Review*, **47**, 769-775.

_____ (1996): "Trend Growth in British Industrial Output 1700-1913: A Reappraisal,"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3**, 277-295.

Cuenca Esteban, J.(1977): "The Rising Share of British Industrial Exports in Industrial Output 1700-1851,"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7**, 809-906.

_____ (1994): "British Textile Prices, 1770-1831: Are British Growth Rates Worth Revising Once Again?," *Economic History Review*, **47**, 66-105.

_____ (2001): "The British Balance of Payments, 1772-1820: India Transfers and War Finance," *Economic History Review*, **54**, 58-86.

Cunningham, H.(1990):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f Children in England, c. 1680-1851," *Past and Present*, **126**, 115-150.

Daunton, M.J.(1989):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Industry, 1820-1914," *Past and Present*, **122**, 119-158.

Davis, L.E., and R.A. Huttenback(1986): *Mammon and the Pursuit of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ane, Phyllis(1969):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ane, Phyllis, and W.A. Cole(1962):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bb, M.(1946):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 Eltis, D., and S.L. Engerman(2000): “The Importance of Slavery and the Slave Trade in Industrializing Brita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0**, 123-144.
- Engerman, S.L.(1992): “Expanding Protoindustrialization,” *Journal of Family History*, **17**, 241-251.
- _____ (1994): “Mercantilism and Overseas Trade, 1700-1800,”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2nd(ed.),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2-204.
- Epstein, S.R.(1998): “Craft Guilds, Apprenticeship, and Technological Change in Preindustrial Europ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684-713.
- Feinstein, Charles(1981):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8-142.
- _____ (1988a): “National Statistics,” in Charles Feinstein, and Sidney Pollard(eds.), *Studies in the Capital 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1750-19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b): “The Rise and Fall of the Williamson Curv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8**, 699-729.
- _____ (1998): “Pessimism Perpetuated: Real Wages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Britain during an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625-658.
- Fine, Ben, and Ellen Leopold(1990): “Consumerism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History*, **15**, 151-179.
- Floud, Roderick, and Kenneth Wachter(1982): “Poverty and Physical Stature: Evidence on the Standard of Living of London Boys, 1770-1870,” *Social Science History*, **6**, 422-452.
- Floud, Roderick, and Donald McCloskey(eds.)(1981):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eds.)(1994):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2nd(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ud, Roderick, Kenneth Wachter, and Annabel Gregory(1990): *Height, Health and History:*

Nutritional Status in the United Kingdom, 1750-19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gel, R.W.(1986): "Nutrition and the Decline of Mortality since 1700: Some Preliminary Findings," in S.L. Engerman, and R.E. Gallman(eds.), *Long-Term Factors in American Economic Growth*,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No. 5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39-555.

_____ (1994): "Economic Growth, Population Theory and Physi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84**, 369-395.

Fogel, R.W., S. Engerman, R. Floud, R. Steckel, J. Trussell, K. Wachter, R. Margo, K. Sokoloff, and G. Villaflor(1983): "Secular Changes in American and British Stature and Nutritio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4**, 445-481.

Gerschenkron, Alexander(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Belknap Press.

Goldstone, J.A.(1986): "The Demographic Revolution in England: A Reexamination," *Population Studies*, **40**, 5-33.

Greasley, D., and L. Oxley(1994): "Rehabilitation Sustained: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a Macroeconomic Epoch," *Economic History Review*, **47**, 760-768.

Habakkuk, H.J.(1963): "Population Problems and Europe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607-618.

Harley, C.K.(1982): "British Industrialisation Before 1841: Evidence of Slower Growt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2**.

_____ (1993): "Reassess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Macro View," in Mokyr(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71-226.

_____ (1998): "Cotton Textile Price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51**, 49-83. See also *EHR*, **52**(1999), 749-765.

Harley, C.K., and N.F.R. Crafts(2000): "Simulating the Two View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0**, 819-841. See also Temin's response in *JEH*, **60**(2000), 842-846.

Harris, R.(1994): "The Bubble Act: Its Passage and its Effects on Business Organiz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4**, 610-627.

_____ (1997): "Political Economy, Interest Groups, Legal Institutions and the Repeal of the

- Bubble Act in 1825,” *Economic History Review*, **50**, 675-696.
- Hartman, Heidi(1976):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1**, 137-169.
- Hartwell, R.M.(1967):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London, Methuen.
- Heim, Carol, and Philip Mirowski(1987): “Interest Rates and Crowding-Out during Britain’s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7**, 117-139.
- Higman, B.W.(2000): “The Sugar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53**, 213-236.
- Hobsbawn, E.J.(1954): “The General Crisis of the European Economy in the 17th Century,” *Past and Present*, **5**, 33-53, **6**, 44-65.
- Hobson, J.M.(1993): “The Military-extraction Gap and the Wary Titan: the Fiscal Sociology of British Defence Policy, 1870-1913,”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22**, 461-506.
- Honeyman, K.(1994): “Review of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1992, (iii)170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47**, 180-186.
- Hoppit, Julian(1990): “Count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3**, 173-193.
- Horrell, S.(1996): “Home Demand and British Industri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 561-604.
- Horrell, Sara, and Jane Humphries(1992): “Old Questions, New Data,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Families’ Living Standards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2**, 849-880.
- _____ (1995a):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Transition to the Male-Breadwinner Family, 1790-1865,” *Economic History Review*, **48**, 89-117.
- _____ (1995b): ““The Exploitation of Little Children?”: Child Labor and the Family Econom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2**, 485-516.
- Houston, Rab, and K.D.M. Snell(1984): “Proto-industrialization? Cottage Industry, Social Change, and Industrial Revolution,” *Historical Journal*, **27**, 473-492.
- Hueckel, Glenn(1981): “Agriculture during Industrialization,” in R.C. Floud, and D.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2-203.
- Hunt, E.H.(1981): *British Labour History, 1815-1914*, Atlantic Highlands, N. J.
- _____ (1986):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Wages in Britain, 1760-1914,”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935-966.
- Hunt, E.H., and F.W. Botham(1987): "Wages in Britai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0**, 380-399.
- Imlah, J.A.H.(1958): *Economic Elements in the Pax Britannica: Studies in British Foreign Trade in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Ingham, G.(1988): "Commercial Capital and British Development: A Reply to Michael Barratt Brown," *New Left Review*, **172**, 45-65.
- Jackson, R.V.(1992): "Rates of Industrial Growth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5**, 1-23.
- Johnson, P., and S.J. Nicholas(1995): "Male and Female Living Standards in England and Wales, 1812-1857: Evidence from Criminal Height Records," *Economic History Review*, **48**, 470-481.
- Komlos, J.(1989): "Thinking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8**, 191-206.
- _____ (1993): "The Secular Trend in the Biological Standard of Living in the UK, 1730-1860," *Economic History Review*, **46**, 115-144.
- _____ (1998): "Shrinking in a Growing Economy? The Mystery of Physical Stature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779-802.
- _____ (1999): "On the Nature of the Malthusian Threat in the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52**, 730-748.
- Kriedte, P., H. Medick, and J. Schlumbohm(eds.)(1981): *Industrialization Before Industri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Proto-industrialization Revisited: Demography, Social Structure and Modern Domestic Industry," *Continuity and Change*, **8**, 217-252.
- Kuznets, Simon(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28.
- _____ (1966):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71): *Economic Growth of Nations*, Cambridge, M. A..
- Landau, N.(1991): "The Eighteenth-century Context of the Laws of Settlement," *Continuity and Change*, **67**, 417-439.

- Landes, David S.(1969):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Fable of the Dead Horse; or, The Industrial Revolution Revisited," in Joel Mokyr(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32-170.
- _____ (1994): "What Room for Accident in History?: Explaining Big Changes by Small Events," *Economic History Review*, **47**, 637-656. also see discussions in *Economic History Review*, **48**(1995), 591-601.
- Lindert, Peter H.(1983): "English Living Standards, Population Growth and Wrigley-Schofield,"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0**, 131-155.
-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1982): "Revising England's Social Tables, 1688-1812,"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9**, 385-408.
- _____ (1983a): "Reinterpreting England's Social Tables, 1688-1913,"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0**, 94-109.
- _____ (1983b): "English Workers' Living Standard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Look," *Economic History Review*, **36**, 1-25.
- Mager, W.(1993): "Proto-industrialization and Proto-industry: The Uses and Drawbacks of Two Concepts," *Continuity and Change*, **8**, 181-215.
- Malthus, T.R.(1973):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 Mantoux, Paul([1928], 1961):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Harper Torchbooks, Rev.(ed.).
- Marglin, S.A.(1974-1975): "What Do Bosses Do?,"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6**, 33-60, **7**.
- Marx, Karl([1867], 1887, 1967): *Das Kapital*, English translation, *Capital*, by Samuel Moore and Edward Aveling with preface by Friedrich Engels, 2 vols. London, S. Sonnenschein, Lawrey, and Co., 1887, Reprint,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 Mathias, P.(1969):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London.
- McCloskey, D.N.(1981): "The Industrial Revolution 1780-1860: A Survey," in R. Floud, and D.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3-127.

_____ (1994): "1780-1860: A Survey,"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2nd(ed.),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2-270.

McKeown, Thomas(1976): *The Modern Rise of Population*, Cambridge, Edward Arnold.

Mendels, F.F.(1972): "Proto-Industrialization: The First Phase of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2**.

Mingay, Gordon(ed.)(1977): *The Agricultural Revolution: Changes in Agriculture, 1650-1880*, London, Adam and Charles Back.

Mokyr, Joel(1977): "Demand vs. Suppl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7**, 981-1008.

_____ (1985):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Economic History," in Joel Mokyr(ed.), *The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Allen and Unwin, 1-51.

_____ (1987): "Has the Industrial Revolution Been Crowded Out? Some Reflections on Crafts and Williams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4**, 293-319.

_____ (1988): "Is There Still Life in the Pessimist Case? Consumptio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1790-185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8**, 69-92.

_____ (1990): *The Lever of Riches: Technological Creativity and Economic Progress*, Oxford University Press, chs. **5**, **10**, 81-112, 239-269.

_____ (1993): "The New Economic Histor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Mokyr(e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n Economic Perspective*, Boulder, Westview Press, 1-131.

_____ (1994): "Technological Change, 1700-1830," in Roderick Floud, and Donald N. McCloskey(eds.), *Th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2nd(ed.),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43.

Moselle, B.(1995): "Allotments, Enclosure, and Proletarianization in Early Nineteenth-century Southern England," *Economic History Review*, **48**, 482-500.

Nardinelli, Clark(1990): *Child Labor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Neal, Larry(1990): *The Rise of Financial Capitalis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in the Age of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holas, S., and D. Oxley(1993): "The Living Standards of Wome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1795-1820," *Economic History Review*, **46**, 723-749.
- Nicholas, S., and R.H. Steckel(1991): "Heights and Living Standards of English Workers during the Early Years of Industrialization, 1770-1815,"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1**, 937-957.
- North, D.C., and B.R. Weingast(1989): "Constitution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 803-832.
- O'Brien, P.K.(1996): "Path Dependency, or Why Britain Became an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Economy Long before France," *Economic History Review*, **49**, 213-249.
- O'Brien, Patrick, and Caglar Keyder(1978): *Economic Growth in Britain and France, 1780-1914: Two Paths to the 20th Century*, London, Allen and Unwin.
- Offer, A.(1993): "The British Empire, 1870-1914: A Waste of Money?," *Economic History Review*, **46**, 215-238.
- Perkin, Harold J.(1969):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1780-188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inchbeck, I.(1930): *Women Worker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1750-1850 with a New Introduction by Kerry Hamilton*, London, Virago, 1981.
- Pinchbeck, I., and M. Hewitt(1973): *Children in English Society*, London.
- Pollard, Sidney(1963): "Factory Disciplin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16**, 254-271.
- _____ (1964): "Fixed Capita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4**, 299-314.
- _____ (1978): "Labour in Great Britain," in Mathias, and Postan(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7-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7-179.
- Porter, A.(1990): "'Gentlemanly Capitalism' and Empire: the British Experience since 1750?,"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 Wealth History*, **18**, 265-295.
- Rebelo, S.(1991): "Long-Run Policy Analysi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500-521.
- Reid, D.A.(1976): "The Decline of St. Monday, 1766-1876," *Past and Present*, **71**, 76-101.
- _____ (1996): "Weddings, Weekdays, Work and Leisure in Urban England, 1791-1911: The Decline of Saint Monday Revisited," *Past and Present*, **153**, 135-163.

- Richardson, Philip(1989): "The Structure of Capital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Revisited: Two Case Studies from the Cotton Textile Industry," *Economic History Review*, **42**, 484-503.
- Roehl, Richard(1976): "French Industrialization: A Reconsider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3**, 233-281.
- Rose, M., P. Taylor, and M.J. Winstanley(1989): "The Economic Origins of Paternalism: Some Objections," *Social History*, **14**.
- Rose, S.(1986): "Gender at Work: Sex, Class and Industrial Capitalism," *History Workshop Journal*, **21**, 113-32.
- _____ (1988): "Gender Antagonism and Class Conflict: Exclusionist Strategies of Male Trade Unionists in Nineteenth Century Britain," *Social History*, **13**.
- Rostow, W.W.(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dolph, R.L.(1992): "The European Family and Economy: Central Themes and Issues," *Journal of Family History*, **17**, 119-138.
- Sabel, Charles, and Jonathan Zeitlin(1985): "Historical Alternatives to Mass Production: Politics, Markets, and Technology in Nineteenth-Century Industrialization," *Past and Present*, **108**, 133-176.
- Schmitt, G.(1990): "Agricultur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and Britain: Another Explan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sectoral Productivity Differences,"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9**, 91-115.
- Schwarz, L.D.(1985):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Long Run: London, 1700-1860," *Economic History Review*, **38**, 24-41.
- Sharpe, Pamela(1995): "Continuity and Change: Women's History and Economic History in Britain," *Economic History Review*, **48**, 353-369.
- Shaw-Taylor, L.(2001): "Labourers, Cows, Common Rights and Parliamentary Enclosure: The Evidence of Contemporary Comment c. 1760-1810," *Past and Present*, **171**, 95-126.
- Shorter, Edward(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Snell, K.D.M.(1991): "Pauper Settlement and the Right to Poor Relief in England and Wales," *Continuity and Change*, **67**, 375-415.
- _____ (1992): "Settlement, Poor Law and the Rural Historian: New Approaches and Opportunities," *Rural History*, **3**, 145-172.

- Sokoloff, Kenneth L., and David Dollar(1991): "Agricultural Seasonality and the Organization of Manufacturing during Early Industrialization: The Contrast Betwee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Series on Historical Factors in Long-Run Growth, **30**, Cambridge, Mass.
- Solar, P.M.(1995): "Poor Relief and English Economic Development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48**, 1-22.
- Solow, R.M.(1994): "Perspectives on Growth Theo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45-54.
- Solow, R.M., and Peter Temin(1985): "The Inputs for Growth," in Joel Mokyr(ed.), *The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Allen and Unwin, 75-96.
- Styles, J.(2000): "Product Innovation in Early Modern London," *Past and Present*, **170**, 124-168.
- Tanner, J.M.(1978): *Foetus into Man: Physical Growth from Conception to Mat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Arthur J.(ed.)(1975): *The Standard of Living in Britai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Methuen.
- Taylor, Nicholas(1973): "The Awful Sublimity of the Victorian City: Its Aesthetic and Architectural Origins," in Dyos, H.J., and Wolff, M.(eds.), *The Victorian City: Images and Realities*, vol. 2.
- Temin, P.(1997): "Two Views of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7**, 63-82.
- Thomas, Brinley(1982): "Food Supply in the United Kingdo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gricultural History*, **56**, 328-342.
- Thompson, E.P.(1963):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56-97.
- _____ (1971):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50**, 76-136.
- _____ (1991): *Customs in Common: Studies in Traditional Popular Culture*, New York, New Press.
- Tilly, L.A., and J.W. Scott(1978): *Women, Work and Famil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Toynbee, Arnold([1884], 1969): *Toynbee's Industrial Revolution: A Reprint of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and Newton Abbot, David and Charles.

Tranter, N.(1990):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Historical Journal*, **33**, 189-194.

Valverde, M.(1988): "'Giving the Female a Domestic Turn': the Social, Legal and Moral Regulation of Women's Work in British Cotton Mills, 1820-1850," *Journal of Social History*, **21**, 619-634.

Von Tunzelman, G.N.(1981): "Technical Progress," in Floud, and McCloskey(eds.), *An Economic History of Britain since 1700*, vol. **1**, Cambridge.

_____(1985): "The Standard of Living Debate and Optimal Economic Growth," in Joel Mokyr(ed.), *The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Allen and Unwin, 207-226.

Voth, H-J.(1998): "Time and Work in Eighteenth-Century Lond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8**, 29-58.

_____(2001): "The Longest Years: New Estimates of Labor Input in England, 1760-183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1**, 1065-1082.

Ward, J.R.(1994):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British Imperialism, 1750-1850," *Economic History Review*, **47**, 44-65.

Weir, David(1989): "Tontines, Public Finance, and Revolution in France and England, 1688-1789,"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 95-124.

Williamson, Jeffrey G.(1984): "Why Was British Growth So Slow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4**, 687-712.

_____(1985): *Did British Capitalism Breed Inequality?*, London, Allen and Unwin.

_____(1986): "The Impact of the Irish on British Labor Market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693-720.

_____(1987): "Debating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24**, 269-292.

Williamson, O.E.(1991): "The Logic of Economic Organization," in O.E. Williamson, and S.G. Winter(eds.), *The Nature of the Firm: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ordie, J.R.(1983): "The Chronology of English Enclosure, 150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36**, 483-505.

Wright, J.F.(1997): “The Contribution of Overseas Savings to the Funded National Debt of Great Britain, 1750-1815,” *Economic History Review*, **50**, 657-674.

_____(1999): “British Government Borrowing in Wartime, 1750-1815,” *Economic History Review*, **52**, 355-361.

Wrigley, E.A.(1983): “The Growth of Population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A Conundrum Resolved,” *Past and Present*, **98**, 121-150.

_____(1988): *Continuity, Chance and Change: The Character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94): “The Classical Economists, the Stationary Stat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D. Snooks(ed.), *Was the Industrial Revolution Necessary?*, London, Routledge.

_____(1998): “Explaining the Rise in Marital Fertility in England in the ‘Long’ Eigh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51**, 435-464.

Wrigley, E.A., and R.S. Schofield(1981): *The Population History of England, 1541-1871: A R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rigley, E. Anthony, Robert S. Davies, James E. Oeppen, and Roger S. Schofield(1997): *English Population History from Family Reconstitution, 1580-1837*, Cambridge University Press.